

# 미래차 전환 가속…광주 車산업, 인력·자격 재설계 필요

EV·자율주행 확산 속 R&D·소프트웨어 인력 수요 급증

내연 차 중심 자격 한계…국제 표준 미래차 자격 도입 시급

전국 유일의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한 '자동차 도시' 광주가 진정한 미래차 선도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인력 수요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 자격 체계 등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제조·정비 중심 구조를 유지해온 국내 자동차 산업이 최근 전동화(EV),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으로 전환하고 산업 중심축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나 기술 자격 체계 구조 등도 하루빨리 변화에 적응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자동차 ISC)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 전용 부품 인력 수요는 2022년 37.0%에서 2024년 22.8%로 급감한 반면 전장·배터리 등 미래차 관련 인력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시스템(6.5%), 시험평가·품질(3.7%), 자율주행·소프트웨어(2.8%)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술직군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사업체 수는 1만 6807개소, 종사자 수는 29만 1717명으로 파악됐

다. 이는 2022년(25만 3935명) 대비 14.9%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체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제조업의 중주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연차 전용 부품군 인력은 매년 감소해 2024년 전체 22.8%로 축소된 반면 타 산업 자동차 부품군 인력은 13.0%로 집계됐다. 이는 미래차 전용 부품군 등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품사가 밀집해 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가 추진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과 '모빌리티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직무 전환과 신규 R&D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광주의 자동차 산업구조는 보고서 지적처럼 국내 자격 체계는 여전히 내연기관 정비·검사 중심에 머물러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차 핵심 역량 겸증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계의 자격 전환 목소리도 높다. 자동차 ISC가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주행차 전용 부품 기업의 90.0%가 '전문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 기업들은 단순 지식 평가보다 '실기·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 정확한 역량 겸증 체계'(26.0%)와 '직무 기반 명확성'(22%), '산업 트렌드 반영과 유연성'(18%) 등을 미래차 관련 자격 체계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 자동차 소프트웨어 ▲미래차 특화(전동화·자율주행) ▲인공지능(AI) 융합(자율주행·제조 AI, 디지털 트윈) 자격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독일의 DGUW 고전압 차량 작업자 자격이나 미국의 EVITP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문 자격 등 국제 표준과 연계된 실무형 자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사업으로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실무 중심의 자격 겸증 체계 등과 연계·확대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대학이나 직업 훈련 과정에 새로운 자격시험을 연동해 지역 인재들이 자격 취득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취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ISC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려면 양적 고용 확대보다 직무 기반 역량 겸증과 인력 순환·구조 확립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계가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국제 표준 기반의 미래차 자격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KGMC, 국내 최초 7m급 저상 전기버스 이름은 '이-스타나'로

차선이탈 경고장치·비상자동 제어 장치 등 탑재

KGM 커머셜(KGMC)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7m급 저상 전기버스의 차명을 '이-스타나'로 확정하고 출시 준비를 위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E)-스타나는 1995년 출시해 10여년간 소형 승합차(밴)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KG 모빌리티(KGM) '이스타나'의 이름을 따 전기 승합차 시대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GMC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7m급 저상 전기

버스 이-스타나는 국내 좁은 도로 여건을 감안해 마을(시내)버스(23인승)와 자가용 버스(22인승)로 각각 개발했다. 전장 7800mm, 전폭 2095mm로 대형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도로에도 적합하고 전고는 2980mm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한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EPB),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EBS), 오토홀드, 후방 추돌 방지 장치(RCW) 등 운전자 편의·안전 장치도 적용됐다. 어린이 통학 버스·관

광버스 등으로 활용되는 자가용 버스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전방 추돌 방지 장치(FCW),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비상 자동 제어 장치(AEBS) 등을 탑재해 고속도로의 위험 상황에도 대비했다.

KGMC 관계자는 "이-스타나 마을버스는 국토 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차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자가용 버스는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본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현대위아, 이동수단 열관리시스템 3종 공개

현대위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이동수단 열관리 부품 신제품 3종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위아가 공개한 시스템 부품 3종은 통합 열관리 모듈, 쿨링 모듈, 슬립 난방 환기·공기 조화(HVAC) 등으로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통합 열관리 모듈은 자동차 내에 분산 배치돼 있던 여러 열관리 부품과 기능을 하나의 부품으로 집

약한 모듈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총 10개의 포트로 구성한 '데카 벨브' 기술을 적용해 열관리 효율을 크게 높였다. 또 데카벨브를 이용해 배터리·구동 모터 냉각과 실내 냉·난방 등 7가지 작동 모드에서 유연하게 자동차 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쿨링모듈과 기존 HVAC 패키지의 높이를 30% 이상 줄인 슬립 HVAC도 함께 선보였다. 쿨링모듈은 배터리와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

(Power Electric) 시스템을 동시에 냉각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슬립 HVAC는 크기를 대폭 줄인 만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고 경량화를 통해 전비도 높였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열관리 부품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공조 전문사로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남영 현대위아 TMS 사업부 전무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빌리티 열관리 부품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해 세계 열관리 시장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



라프 반 누펠 현대차 유럽권역상품담당실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 현대차관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 현대차, 전기차 '더 뉴 스타리아' 첫 공개

상반기 한국·유럽서 판매 시작

나의 수평 라인으로 이어진 연속형 램프를 적용했고 EV 전용 17인치 휠로 깔끔한 느낌을 살렸다.

현대자동차가 대표 다목적 차량(MPV) 스타리아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전동화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에 참가해 '더 뉴 스타리아 E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스타리아 EV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로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다목적 전기차다.

외관은 전기차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깔끔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전면부에는 하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기아, 소형 전기 SUV 'EV2'로 유럽 시장 공략

기아가 유럽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신형 콤팩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2'를 공개했다.

12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EV2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한 크기와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 편의사양 등을 갖춘 기아의 6번째 전용 전기차이다. 기아는 EV2를 앞세워 소형(글로벌 B 세그먼트) 전동화 SUV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 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EV2는 전장 4060mm, 전폭 1800mm, 전고 1575mm의 크기를 바탕으로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현대적인 SUV 이미지를 갖췄다. 전면부는 매끄러운 후드와 불륨감을 강조한 범퍼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좌우 끝 세로형 헤드램프와 스타일 시그니처 라이팅이 세련된 인상을 더했다. EV2의 실내는 '피크닉 박스' 컨셉으로 간결하면서도 감성과 실용을 모두 잡은 공간으로 디자인했다고 기아는 소개했다.

EV2는 통례인자 모델 기준 61.0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48km(16인치 휠·유럽 WLTP 기준 차체 축정치)를 달릴 수 있다.

기아는 올해 브뤼셀 모터쇼의 일반 공개 기간인 10~18일(현지시간)까지 1401m<sup>2</sup> 규모의 전시 공간에 EV2 등 총 19대를 전시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